

## 일본의 양계업

### 산란계

#### 계란이 비타민 K 흡수 증진

큐-피-(주)는 지난 10월 22일 가나자와에서 개최된 제 51회 일본영양개선학회에서 「채소와 마요네즈의 혼합이 영양의 흡수를 촉진시켜 마요네즈가 비타민K의 흡수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자용성 비타민은 그대로 별로 흡수되지 않고, 유지에 용해되면 흡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용성 비타민의 한가지인 비타민K에 대한 마요네즈 효과를 조사한 것으로, 비타민K는 마요네즈와 함께 먹는 기회가 많은 채소, 브로커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뼈 형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비타민이다. 이번의 큐-피-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는 (1) 비타민K와 종류수투여, (2) 비타민K와 식물성 유지 투여, (3) 비타민K와 난황 마요네즈를 각각 경구 투여하여 6시간 후에 채혈을 실시하여 혈장중의 비타민K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혈장중의 비타민K는 유지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높아지고, 마요네즈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았다. 통상의 식탁에서 브로커리만을 섭취하는 것보다 마요네즈와 함께 먹는 것이 브로커리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인 비타민K가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계명신문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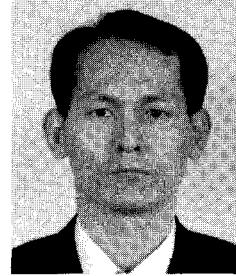
#### 일본 계란 태국 수출

토요하시사료(豊橋飼料)(주)가 거래기업과 함께 설립한 (주)MEC Food는 9월부터 태국의 수도 방콕에 일본계란을 수출하여 「계란 비빔밥을 먹게 되었다」는 현지 일본인의 호평을 얻었다.

방콕에서도 계란이나 오리알이 판매되고 있지만, 현지 일본인으로부터 신선하고 안전하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일본의 계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었다. 주 1회 방콕시내 2개의 후지수퍼에서 6개 포장의 백색란과 지양란(특수란)을 판매하고 있다. 짜바깽(千葉縣) 양재장에서 바로 낳은 계란을 GP센터로 옮겨 엄격하고 세밀한 검사를 거쳐 포장되어, 나리다(成田)공항의 지정된 장소로 납입하여 동물검역을 받고 JAL편을 통해 태국으로 공수되어 곧바로 방콕시내 수퍼에 진열된다. 현지판매가격은 6개 포장 지양란의 경우 300BT(약8,400원)이고 백색란은 196BT(약 5,500원)이다. (주)MEC Food는 「방콕에서의 판매는 비행기 수송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현지 수퍼에서의 기대가 커서 횟수를 거듭 할수록 판매량이 늘어 9월 한 달 3,000팩이 공수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본항공(JAL)과 공동으로 상품내용이나 판매 전략을 개선하면서 다른 지역의 백화점이나 국가에서의 판매도 계획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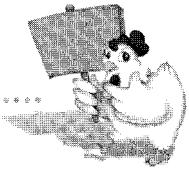
#### 산란계 농가 소득 11.0% 감소

2003년 일본의 3천수 이상의 산란계농가의 평균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1.0%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계란 가격의 폭락으로 산란농가의 소득은 전년의 약 1/10로 격감하였다. 반면 계란 1kg당 생산비는 1,440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하는데 그쳤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KR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 육 71

###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효과 평가

식품안전위원회는 11월4일 동물용의약품조사회의에서 심의된 수입품 조류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3품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표하여, 12월1일까지 폭넓은 의견과 정보를 모집한다. 이 의견과 정보를 정리하여 식품안전조사회에 다시 보고되어 수입승인을 받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사용허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10월1일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식품건강평가를 요구하여 동물용의약품전문조사회의에서 검토되었다. 그 결과 3품목(노비리스[Ainac, AI불활성백신NBI, 레이야문AIV]) 모두 「적절하게 사용되는 한 식품을 통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금년 일본에서 발생한 야마구찌균(山口株)주에 대한 접종시험(106)에서 비접종군은 모두 폐사가 발생하였다. 「노비리스」는 권장대로 2회 접종에서는 폐사나 바이러스 분리는 없었지만, 1회 접종에서는 2수(2/10)가 폐사되었고 바이러스도 분리되었다. 「불활성백신」은 권장접종 2회중에서 1회만 접종하여도 폐사도 없었고 바이러스도 분리되지 않았다. 「레이야문」은 1회 접종에서 폐사가 없었고, 2회 접종에서는 1수(1/10)가 폐사하였지만 양쪽 모두 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았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보고를 합하여 「발병방지와 바이러스 배설량의 저감이 확인되었지만, 감염의 완전한 방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 토종 닭고기의 부위표시 규정 설정

농림수산성은 11월4일 농림물자규격조사회의 부회를 열어 토종닭에 대한 일본농림규격(JAS)의 개선안을 의결하여, 안심(ささみ), 작은 고기(こにく), 피부, 기름, 사냥, 근위, 등으로 표시가 가능하다고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토종닭의 다리정육」에 더하여, 「○○토종닭의 근위」 등의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품질유지기간의 용어를 상미기간으로 통일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도오쿄도(東京都)축산회에서 「도오쿄(東京)샤모는 현행의 사육방법은 특정JAS 토종닭고기의 인정이 어렵고, 전통적인 샤모 고기의 맛을 지키기 위하여 별도의 사육방법을 인정하지만 평사항목을 빼주기 바란다」는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성사무국은 더욱 검토하여 부회에 넘기도록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계육관세 교섭계속

일본과 태국과의 체결교섭이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닭고기(농산물)에 대한 관세폐지 문제이다. 태국에서는 쌀을 예외로 하는 대신에 닭고기, 설탕, 전분의 관세폐지·삭감을 타진하고 있다.

고이즈미(小泉)총리도 「교섭을 촉진하고 성공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성장관은 태국의 타신총리와 만났을 때 「태국은 교섭을 촉진하고 싶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려서라도 협의하고 싶다」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쌀을 제외한 3품목에 대한 관세폐지·삭감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식조협회 관계자는 쌀을 대신하는 닭고기 협상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어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